

# 전공, 교양 및 온라인강좌에 대한 만족도 및 충실도 분석

## A Study on Satisfaction and Perceived Fidelity to the Major, Non-major and Online Classes

남 상 조  
목원대학교

Nam, SangZo  
Mokwon Univ.

### 요약

본 연구는 2010년 12월 15일부터 2011년 1월 3일까지 1,045명의 대전 소재 4년제 M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교양 및 온라인강좌에 대한 만족도와 충실도를 설문하여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 요소를 도출해보고 또한 학년별, 소속단과대별, 성별 만족도나 충실도의 차이를 SPSS 18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결과 전공강좌, 교양강좌, 온라인강좌에 대한 만족도와 충실도는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학년별 만족도나 충실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 만족도나 충실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소속 단과대학별 교양강좌에 대한 만족도나 충실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전공강좌에 대한 충실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Abstract

In this paper, we surveyed students of M university in DaeJeon to analyze the satisfaction and fidelity to class. Based on survey data from 1,045 participants, we verified descriptive differences in satisfaction and perceived fidelity to class among the major, non-major and online classes. Also, we verified statistical differences in satisfaction and fidelity to class according to sex, academic year grade, attending college.

## I. 연구의 배경

대학생들이 통상적으로 느끼는 교양강좌, 전공강좌, 인터넷강좌 각각에 대한 만족도나 충실도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1][2]. 본 연구는 학년별, 성별, 소속 단과대학별로 이러한 만족도나 충실도의 차이가 과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할 정도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 II. 연구방법 및 내용

### 1. 연구 방법

2010년 12월 15일부터 2011년 1월 3일까지 1,045명의 대전 소재 4년제 M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교양 및 온라인강좌에 대한 만족도와 충실도를 설문하여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 요소를 도출해보고 또한 학년별, 소속 단과대별, 성별 만족도나 충실도의 차이를 SPSS 18 패키지의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 2. 연구 내용

### 2.1 인구 분포

1학년 261명, 2학년 292명, 3학년 298명, 4학년 194명의 응답자를 보여 학년 분포는 대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었으며 4학년이 다소 적다. 또한 성별은 남자가 47%, 여자가 53%로 여자가 다소 많다. 설문 참여자들의 소속은 각 단과대별 재적 인원수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2.2 연구 결과

#### (1) 만족도, 충실도 산술 비교

- 1) 교양강좌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으로 볼 때 48.5점으로 매우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교양강좌 수강 시 본인의 성실도는 100점 만점으로 볼 때 74.1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이며 만족도는 낮지만 자신은 성실히 교양강좌 수강에 임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 2) 전공강좌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으로 볼 때 65.1점으로 교양강좌의 만족도보다는 월등 높았다. 전공강좌 수강 시 본인의 성실도는 100점 만점으로 볼 때 79.8점으로 교양강좌보다도 당연히 높고 수치 자체도 상당

히 높은 점수를 보이며 본인은 교양강좌보다 더 성실히 전공강좌 수강에 임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 3) 인터넷강좌 수강 경험은 34.4%로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은 약 1/3이 수강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족도는 100점 만점으로 볼 때 54.5점으로 교양강좌의 만족도보다는 높지만 전공강좌의 만족도보다 낮았다. 인터넷강좌 수강 시 본인의 성실도는 100점 만점으로 볼 때 67.2점으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교양강좌의 충실도 74.1점보다도 낮다. 인터넷강좌에서 중요한 요소는 성실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 (2) 가설 검증

### 〈가설 1〉 학년별 교양만족도 차이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므로 95% 신뢰도하에서 학년별 교양만족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학년에 비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고 특히 4학년의 불만족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만족도차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가설 2〉 학년별 교양충실도 차이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므로 학년별 교양충실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학년과 4학년이 보다 충실했다고 답한 반면 1학년의 충실했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적다.

### 〈가설 3〉 학년별 전공만족도 차이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므로 학년별 전공만족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학년에 비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4학년은 만족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 〈가설 4〉 학년별 전공충실도 차이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므로 학년별 전공충실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학년에 비해 2학년의 충실도가 상당히 높은 양상을 보인다. 그러다가 3, 4학년 때 다소 충실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가설5〉 성별 교양만족도 차이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므로 성별 교양만족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가설 6〉 성별 교양충실도 차이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므로 성별 교양충실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가설 7〉 성별 전공만족도 차이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므로 성별 전공만족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가설 8〉 성별 전공충실도 차이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므로 성별 전공충실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가설9〉 소속별 교양충실도 차이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므로 소속별 교양충실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가설 10〉 소속별 전공만족도 차이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므로 소속별 전공만족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테크노과학대의 전공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인문대의 전공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인다. 사범대도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인다.

### 〈가설 11〉 소속별 전공충실도 차이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므로 소속별 전공충실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III.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교양강좌보다는 인터넷강좌의 만족도가 크지만 전공강좌에 대한 만족도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인터넷강좌에 대한 본인의 성실도가 교양강좌보다 떨어짐을 볼 수 있었다. 학년별로는 만족도나 충실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성별 차이는 없었고 소속별로는 전공만족도의 차이가 있었다.

## ■ 참고 문헌 ■

- [1] Nam, SangZo, Effectiveness and Problems of Distance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6(1), 12-19. (2010)
- [2] 문숙경, 남상조, 이러닝 수강생 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7(1), 161-168, 2006.